



삶의 시간

홍은희/중앙일보 논설위원

연 전에 은퇴한 은사를 모시고 제자들 몇몇이
서 조출한 모임을 가졌다. 제 살기에 바빠
— 평소 마음은 있어도 안부조차 제대로 전하
지 못한 채 지내다가 한 친구의 착안으로 다들 옹
다커니 하고 모인 자리였다. 저마다 지니고 있던
추억의 편린을 이리저리 들춰내며 재학시절의 추
억담을 나누던 끝에 한 친구가 “선생님이 들
려주신 얘기 가운데 지금도 마음
에 남아있는 얘기”라며 말을 꺼
냈다.

미국의 한 도시에서 살
게 된 선생님이 타고 다닐
중고자동차를 물색하던 끝
에 적당한 차를 발견해 차
주인에게 찾아갔더라. 차
값도 적당하고 상태도 좋은
편이어서 계약을 하고 나서려
는데 뒷마당에 요트 한 채가
있는 것이 아닌가. ‘마당에 웬
요트?’ 궁금증이 일어난 선생님이 주인에게 그
사연을 물었겠다. 그러자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
자초지종을 들려주더라.

“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요트를 한 채 갖자고
약속했답니다. 물론 부자도 아닌 저희들로서는 처
음부터 목돈을 주고 살 형편은 못됐지요. 그래서
매주 일요일이면 둘이서 요트를 만들기로 했답니
다. 이후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필요한 재
료를 사다가 뒷마당에서 요트를 만들어왔답니다.
이제 끝이 났어요. 다음주엔 드디어 진수식을 한
답니다.” 결혼한지 20년만에 마침내 제 힘으로 요
트를 갖게 된 이 부부의 얘기 끝에 선생님은 이렇

게 덧붙였다고 한다.

“요트가 뭐가? 미국 사회에서 ‘부(富)의 상징’
으로 꼽히는 물건이 아닌가? 웬만한 부자가 아닌
다음에야 언감생심(焉敢生心) 꿈도 꾸지 못할 물
건인데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
해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명을
받았다.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

이루기엔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
다는 생각에 쉽게 빠지게 된다.
그러나 인생이란 적어도 한 가
지를 이루기엔 충분한 시간
이다. 이 점을 잊지 말도록
해라.”

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
이런저런 목표를 세운다. 그리
고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
을 때마다 너무나 쉽게 ‘부족한
시간’을 탓한다. 학생 시절에도,
성인이 되어서도, 심지어 생의 마

지막 순간에도 ‘조금만 시간이 있었더라면...’ 하
고 되뇌인다.

그리곤 좋지 못한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인 실
패는 물론, 가족에게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한
것까지도 시간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
기 일쑤다. 그러나 우리네 삶의 시간은 결코 짧지
않다. 단 둘이서 짬짬이 낸 시간만으로도 대서양
을 횡단할 요트를 만들 정도가 아닌가.

우리가 정작 부족하다고 말해야 할 것은 시간
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애정과 소망이라고 나는
생각한다. 사랑과 희망은 집념과 노력을 잉태하는
원동력이기 때문이다. **PPFK**

